Daishin 증권

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3 월 2 주차

- 과거 지정학 위기 경험, 단기 하락 후 다시 상승 전환하는 회복력 연출
- 중국 양회, 첨단 산업 육성 주목, 팔란티어, 엔트로픽 효과 및 중동 위험 수혜. 이퀴닉스, 북유럽 데이터센터 플랫폼 atNorth 인수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MCHI), [미국주식] 팔란티어(PLTR), [글로벌리츠] 이퀴닉스(EQIX)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유가 100 불의 공포, 나오지 않는 TACO 에 장기화 우려 고조

- 100달러 선을 돌파한 국제유가, 나오지 않는 TACO
- 코스피, 또 다시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슈에 학습된 시장은 5,100선 지지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으로 전 업종 무차별적 약세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Commodity

상방 변동성 확대된 유가, 그럼에도 안정 가능성 무게

-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출 중단 사태, 유가 변동성 일으킨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사재기 열풍
- 그러나 과도한 비관론 지양, 1) 여전히 수출 중인 사우디+이란 2) 공격 능력 약화된 이란
- 3) 이란 전쟁을 미중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트럼프, 정상회담 직전 지정학 리스크 후퇴 무게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News] [반도체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

- 매크로 리스크로 단기 주가는 급락. 방향 전환 가능성 유효.
- 메모리반도체 초호황 증거는 지속 확인. 파운드리도 회복 가시성 증가.
- GTC 2026, 주주환원 강화 및 판매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Weekly

2026년 3월 2주차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 과거 지정학 위기 경험, 단기 하락 후 다시 상승 전환하는 회복력 연출
- 팔란티어, 중동 위험 수혜. 이퀴닉스, 북유럽 데이터센터 atNorth 인수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China ETF(MCHI), 팔란티어(PLTR), 이퀴닉스(EQIX)

[글로벌전략] 일희일비는 금물. '지정학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이란, 투항은 예정된 수순

1980년 이후 발생한 16번의 지정학 위기에서 미국 증시(S&P500지수)는 단기 하락에 그치며, 다시 상승 전환하는 빠른 회복력 연출(1주일 -0.3%, 1개월 +0.8%, 3개월 +3.1%, 6개월 +5.5%, 12M +10.5%). 올해 '돈로 독트린' 이 실행에 옮겨졌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발성. 미국 ·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단시간 내 최고지도자 사망이 결정타 역할. 이란 투항은 예정된 수순으로 과거 지정학 위기 발생은 항상 투자 기회였다는 점에서, 3월 상반월 변동성 확대 후 하반월로 갈수록 글로벌 증시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도모할 전망(비중확대)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MCHI): 산업 구조 전환 및 내수 회복 정책 + 글로벌 제조업 회복 기대

3.5일 양회에서 '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0%로 하향. 그럼에도 1) AI · 반도체 · 로봇 · 항공우주 · 바이오 · 신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 언급, 2) 재정지출 규모 증가(5.66 → 5.89조 위안)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4,264억 위안, +10% YoY) 확대 등 감안 시 산업 구조 전환 투자는 지속. 양회 기간 15차 5개년 정책 구체화, 내수 회복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글로벌 제조업 업황 회복 흐름이 이와 맞물릴 경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주식] 팔란티어(PLTR):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우려 완화와 동시에 중동 분쟁 수혜 예상

앤트로픽이 기업용 에이전트 행사를 개최하며 클로드 코워크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출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 이에 인공지능 툴에 의해 팔란티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 또한, 중동 분쟁은 팔란티어의 정부 계약 파이프라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동사 매출의 약 50%는 정부 지출에 의존하며 군사 및 정보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 중

[글로벌리츠] 이퀴닉스(EQIX): 북유럽 데이터센터 플랫폼 atNorth 인수

2월 말, 이퀴닉스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는 북유럽 DC 코로케이션 업체 atNorth를 40억달러에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 atNorth는 AI 및 고성능 컴퓨팅 수요(HPC)에 최적화된 고밀도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북유럽 기후를 활용한 냉각 에너지 효율에 특장점 보유. 최근 데이터센터 M&A 트렌드는 플랫폼 단위 인수로 이동 → 전력 확보, 조달 체계, 납기 관리 역량을 내재화한 플랫폼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북유럽은 유럽 내에서도 투자가 활발한 신흥시장으로 이번 딜로 이퀴닉스의 유럽 인프라 발판 확대

Strategy

유가 100불의 공포, 나오지 않는 TACO에 장기화 우려 고조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100달러 선을 돌파한 국제유가, 나오지 않는 TACO
- 코스피, 또 다시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슈에 학습된 시장은 5,100선 지지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으로 전 업종 무차별적 약세

100달러 선을 돌파한 국제유가, 나오지 않는 TACO

–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를 돌파. 장중 110달러를 상회하기도 하면서 시장 긴장감 고조. 유가가 상승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TACO를 기대하는 심리가 기저에 존재했으나, 트럼프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이 이란 핵 제거와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일 뿐이라며 강경한 스탠스 유지

– 이란은 주말 사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신임 최고 지도자로 선출, 친미 성향의 지도자를 세우고자 한 미국의 계획이 무산. 트럼프는 백악관의 승인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압박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요 산유국들의 강제 감산 여파 또한 지속. 미국의 사우디 주재 비필수 인력 철수명령 등 긴장 수위와 사태 장기화 우려 점차 고조

코스피, 또 다시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슈에 학습된 시장은 5,100선 지지

– 11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와 1,490원대로 올라선 달러원 환율 급등을 반영

– 코스피는 장중 –8% 하락하며 지난 수요일 이후 3월에만 2번째, 통산 9번째 서킷브레이커(CB) 발동, 한 달에 2번의 CB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처음. 상승 종목수는 74개에 불과. 추가 낙폭 제한되고, 개인의 저가매수세로 5,100선을 지지. 지난주 등락에서 P/E 8배 구간인 5,000pt 선에 대한 신뢰 형성

– 14시 이후 G7, IEA의 전략비축유 대규모 공동 방출 논의 소식에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으로 상승폭 축소. 정부는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논의, 코스피도 장 막판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마감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으로 전 업종 무차별적 약세

– 전 업종 약세. 외국인 바스켓 매도와 지수 급락에 따른 대형주 위주의 무차별적 하락

– **반도체**: 삼성전자(–7.8%), SK하이닉스(–9.5%), 한미반도체(–8.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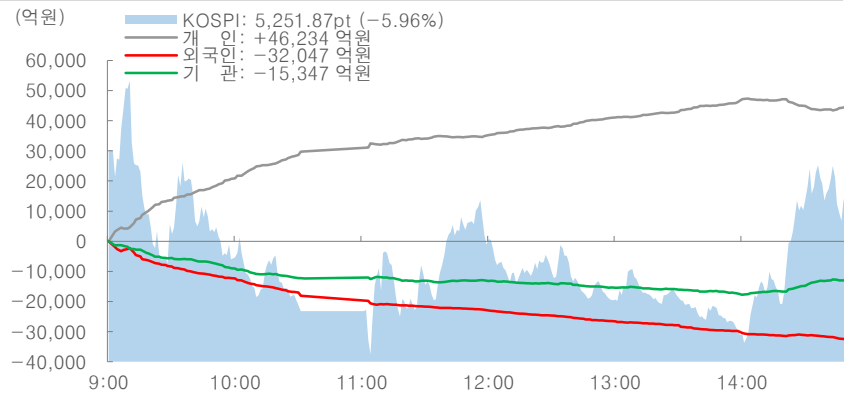
– **방산**: 현대로템(–7.7%), 한국항공우주(–5.0%), LIG넥스원(–4.6%) 등

– **코스피 대형주**: 현대차(–8.3%), SK스퀘어(–8.0%), LG에너지솔루션(–4.8%) 등

– **에너지/자원/요소수**: 중동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에 따른 공급 우려 반영

포스코인터내셔널(+4.5%), LX인터내셔널(+5.2%), 롯데정밀화학(+5.6%)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modity

상방 변동성 확대된 유가, 그럼에도 안정 가능성 무게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호르무즈 해협 수출 중단 사태,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사재기 열풍
- 그러나 비관론 지양. 1)여전히 수출 중인 사우디+이란 2)이란 공격 빈도 ↓
- 3)이란 전쟁은 미중 협상 지렛대, 정상회담 직전 지정학 리스크 후퇴 무게

호르무즈 해협의 수출 중단 사태,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사재기 열풍

석유 공급 부족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가항력 상황이 길어지면서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원유 저장 능력이 14~20일에 그치는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감산을 시작했으며 이라크(남부)는 이미 기존 산유량 대비 70%가 감소했다. UAE는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우회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송 능력이 150만b/d에 그치는 탓에 완전 대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출 차질 규모가 불과 며칠 사이에 530만b/d(기존: 377만b/d)까지 확대되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사재기가 유가의 상방 변동성을 한층 더 키운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의 83%는 아시아로 흘러간다. 수입 의존도로 보면 중국, 인도, 대만, 한국이, 전략비축유(SPR) 재고 일수로는 베트남, 인니, 필리핀, 태국, 인도 순으로 취약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정유 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UAE로부터 원유 600만배럴을 긴급 확보했으며 베트남은 정유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폐지(20%→0%)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은 인도와 중국의 경쟁적 매입으로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CNN 서베이가 말해주는 것처럼 전쟁 장기화 우려는 이들의 사재기 열풍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도한 비관론은 지양, 예단 어렵지만 여전히 단기 시나리오로 접근

다만, 과도한 비관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1)글로벌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2,000만b/d)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사우디는 East-West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회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 또한 160만b/d 이상의 원유가 자유롭게 수출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Kharg 아일랜드만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수출 차질이 추가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2)이란의 공격 빈도 역시 낮아졌다. 개전 초기 동원된 드론과 미사일은 800대와 350기였던 반면 지금은 160대와 38기로 현저히 감소했다. 이스라엘 측은 무기고와 발사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발사 빈도가 낮아진 것이라 설명했다. 간헐적인 공격이 계속되더라도 제공/해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3)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전쟁은 중국과 협상을 위한 지렛대이기도 하며 이를 감안하면 장기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4~5주 동안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발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수입 루트(중동+베네수엘라)까지 차단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중국 측에 미국산 원유 · LNG 구매를 늘리도록 압박할 것이란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이번 전쟁이 협상을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정학 리스크는 예단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장기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곡점(예: 사우디 참전, 쿠르드 세력 남하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단기(1개월) 시나리오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Issue & News

반도체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

- 매크로 리스크로 단기 주가는 급락. 방향 전환 가능성 유효.
- 메모리반도체 초호황 증거는 지속 확인. 파운드리도 회복 가시성 증가.
- GTC 2026, 주주환원 강화 및 판매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RA서지원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전자	Buy	270,000원
SK하이닉스	Buy	1,450,000원

매수의견 유지합니다

미국-이란 전쟁 속, 매크로 리스크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Risk 확대)가 부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고점 대비 각각 24%, 25% 하락. 금번 사태가 경기 둔화의 시작점이라면,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고, Cyclical 성격이 강한 반도체 주식을 먼저 파는 것은 합리적 대응.

하지만, 당사는 끝을 논하긴 이른 시점이라 생각. 매크로 리스크의 완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매도 실익이 낮은 구간이며, 목표주가를 하향할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판단. 이에, 목표주가를 유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필요.

1, 초호황의 재확인

경기 둔화 우려와 무관하게, 업황 강세는 지속. 헬륨과 같은 반도체 소재 수급난 우려가 있으나, 공급망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선제적으로 다각화. 생산 차질 Risk는 제한적이라는 판단. 이에 더해, 단기 가격 전망은 오히려 상향. 고객들이 경기 둔화 리스크보다는 AI 시장 선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증거.

- 1Q26 범용 DRAM과 NAND ASP 전망을 전분기 대비 90%, 50% 상승으로 상향 (기존 전망: 범용 DRAM q-q +80%, NAND q-q +47%).

- 2Q26 가격 정책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수급 불균형을 감안 시,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2Q26 범용 DRAM과 NAND ASP 전망을 전분기 대비 20% 상승으로 상향 (기존 전망: 전분기 대비 10% 초중반 상승).

- 서버의 경우, 가격 급등에 저항하기보다는 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 2Q26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용인하고, 구매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

- 세트에서는 대형 거래선들의 구매 정책에 주목. 현 공급 부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중국의 빈자리를 틈타, 공격적 출하 정책으로 판도를 바꿔보겠다는 입장. 선제적 가격 협상 체결에 기반한 공격적 세트 출하 정책 전개 예상.

2. 지정학적 Risk가 문제라면, 삼성파운드리는 수혜

중동 분쟁만큼 시장이 우려했던 사항이 있다면, 대만-중국 리스크. TSMC의 경우, 선단공정의 대다수를 대만에서 전개. 매년 나타나는 웨이퍼 판가 인상에 대한 저항, 지정학적 Risk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의 목적으로, 삼성파운드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 중. 짝수 공정 (2, 4, 8nm) 중심 가동률의 빠른 회복 및 최선단공정 신규 거래선 확대 가능성에 주목 (북미 중심).

3. 변화의 매개체 찾기 (Page 2 참고)

1) GTC 2026: NAND 신제품 공개 전망. 탄력적 시장 성장 기대 증폭될 것.

2) 주주환원 강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강화 정책 발표 기대.

3) 판매 정책의 변화: 장기계약으로의 구조 변화 가능성 유효.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